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五)

鄭景玉

그러나 社會學的 倫理觀에만 固執하여서 善과 惡의 □□을 합스가 말한 것과 가티 社會的으로 成形된 『約束』을 직힌다든가 『잔스튜워드밀이 말한대로 多數 可決式으로 가장 만흔 사람에게 가장 오래 동안 가장 큰滿足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든가,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가티 個我를 無視하고라도 社會의 約束에 絶對服從하여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紗라 오게 된다.

자 오늘날 善이니 惡이니를 判斷하는것은 個人的인것보다 社會的이라고 할 것이며 特別히 原始時代에 잇서 서는 一部族의 慣習的 行動을 善이라고 하고 여기에 어그러진 것을 惡이라고 하였다고 하자. 다시 말하자면 原始人의 道德內容은 곳 그 部族의 風俗의 內容이라고 하자. 그러나 部族的으로 形成된 □成法則을 그대로 實行하라고 強□한다는 것과 그 部員 中 한 두 사람이 理□的으로 判斷하여서 그 法대로 認定하거나 行하는냐 아니 하는냐 하는 것은 純全히 眞問題이란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솔리 道德觀念과 神□ 倫敎 一九二四年 第三刊六六頁) 내 慾望과 내 道德的 理□은 社會가 주는 一定한 風俗慣例를 버리고 眞 길을 생각하고 잇스면서도 社會의 強制的 勢力이 무서워서 달하갈수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社會를 反抗하는 그 反抗에 道德價値가 잇다는 말이다. 萬一 이러한 새로운 倫理性的의 表現이 업다고 하면 社會의 □化는 不可能하다. 나아가서 □成倫理□□을 批判하고 내 生命을 던져서라도 참된 길을 밝게 하는 殉敎者의 精神에 價□感이 살아잇다고 할 것이다. 原始社會의 倫理觀을 들어 가지고 社會制度에 □□하고 社會的 均□을 保存하는것만이 善惡의 標準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斷이 아닐가 한다.

特別히 오늘날 社會的 道德이라면 傳授的으로 바더서 一般民衆이 □行하고 잇는 慣習道德을 □味하는 것이라면 社會를 따라간다는 것은 眞正한 倫理觀

으로 判斷하여서 大□物이다. 特別히 오늘날 朝鮮에 여러 가지□□한 傳授道
德이 一般民衆의 마음을 옹켜잡고 있는 卞에 竊박 竊박 三年을 더러운 자리
에 안저 잇서야 하고 婦女를 賤待하여야하고 □女の 社交를 못한다면 일은
다 보았다고 하겠다. 社會的으로 支持하고 □□하는 傳授的 道德觀을 打破하
여야 여러 무리의 그을 안에서 하품을 하고 안저 잇는 ××와××과 道學者를
잡어 내여라. 이것이 참된 □味에 잇서 서의 善이다. 非 妥協의 精神, 反抗의
□□-웨 우리는 이것을 罪惡이라 보는가.